

올리브 블레싱

목장 모임이 어른들만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때 어린이들이 있는 목장들은 어린이들과 먼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사역원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브 블레싱 (Olive Blessing) 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128 편 3 절의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에서 나온 이름 입니다.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1-2 곡 준비해서 자녀들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후에 자녀들이 돌아 가면서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들 한명 한명의 기도제목을 위해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장에 Youth 들이 참석을 하였을 경우 어린이들과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자녀가 성장을 해서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올리브 블레싱 시간은 15 분 정도 가지면 됩니다. 자리 배정은 아이들 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 사이 사이에 앉도록 합니다. 찬양은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아이들이 이해할수 있는 1-2 곡을 준비해서 부릅니다. 목자가 목장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정하고 매주 자녀들에게 상기 시켜 줍니다. 어린이 나눔은 제일 나이 많은 어린이부터 지난주에 감사한 것 한 가지와 이번주 기도제목 한 가지를 앞에 나와서 나누도록 합니다. 목장에 Youth 들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Youth 도 같이 참석하여 나눔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나눔을 한 다음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어린이들은 별도로 어린이 목장을 갖도록 한후에 어른 목장을 시작 합니다.

어린이도 목장 식구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기도제목은 어른 기도 제목같이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한주간 동안 중보기도 해줍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매주 만나서 친한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목장 모임을 좋아 합니다. 어린이들로 인하여 부모가 목장에 나오고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목자는 초등학교 3 학년 이상 어린이 중에서 세워 어른들이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어린이 목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목장 식구 중 한명이 어린이 목자의 사역을 돕도록 합니다. 어린이 사역자인 쥘리 전도사님이 어린이 목장에 필요한 어린이 목장 규칙, 목장 공작 교재, 어린이 찬양 곡, 교육 비디오 등을 공급하고 어린이 목자나 목장 어린이 담당자를 훈련 합니다.

매주 목장 모임때 갖는 “올리브 블레싱”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됩니다.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간의 대화 없이 살기가 쉽고 그로인해 부모와 자녀들간에 서로의 삶과 생각을 모르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매주마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서 일주일간의 자신의 삶과 감사 제목과 기도제목을 부모님들과 오픈하고 나눌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할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 해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는것이 필요한데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질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여러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을수 있어서 좋습니다.

셋째로, 어릴때부터 신앙훈련을 삶으로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매주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부모들의 신앙을 삶으로 실제로 보고 배우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될수 있게 되어지고 어려서부터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받는 신앙훈련을 받게 되어 집니다. 어릴때 보고 배운것은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남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을 한 후에도 삶을 나누고 기도를 받고 해주는 삶을 살게 되어

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뿐 아니라 신앙이 전수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교회 에서는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 싱글 목장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것이 가능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는 목장에서는 꼭 어린이 목장과 어린이 목자를 세우고 목장 모임 시간에 어린이와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꾸준히 가질때에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할수 있을뿐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부모와 자녀들을 끈끈한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목장에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어도 그 한명을 놓고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자매가 있으면 태아를 위해 같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대학부 이상으로 장성해서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 목장에서라도 이 시간에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내 놓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mzaMNE7o0s>

위에 푸른 초장 링크를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축복기도 끝나고 어린이 목자들과 함께 보내시기 이전에 함께 시청하시고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부터 매주 이 영상들을 I-pad 를 TV 와 연결시키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로 보셔도 됩니다. 어린이 목자를 돕는것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보고 배울수 있는 영상이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